

국토부,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 소통 플랫폼 구축한다.

- 7월 11일 해외건설업계 소통 강화를 위한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개최
- 수주지원단 활동 성과 및 투자개발 활성화 정책 등 공유 및 업계 의견수렴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1일(목) 오후 3시 서울에서 해외건설 업계 대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 등이 참석하는 ‘해외건설 수주 플랫폼’ 간담회를 개최한다.

* (업계) GS건설, 대우건설, 삼성물산, 한화건설, 현대건설, 현대ENG, SK에코플랜트, 삼성E&A, 두산에너지빌리티, DL E&C, 쌍용건설, 포스코E&C
(공공기관)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에너지경제연구원
(협회) 해외건설협회, 플랜트산업협회 등

○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성과 및 계획,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,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글로벌 동향 등 최근 시장동향과 정부 지원정책 방향 등을 업계에 공유한다.

○ 또한, 참석한 해외건설업계 대표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우선,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정상순방 및 장·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현지 파견 등으로 총 11개국*을 방문한 성과에 대해 공유한다.

* (정상순방수행) 중앙아 3개국(투르크·카자흐·우즈벡) 6월
(수주지원단) 이라크·UAE(2월), 미국·파나마(3~4월), 르완다(4월), 벨기에·독일(5월, ITF 등)
파나마(대통령 특사)·모로코(6~7월)

○ 특히, G2G 협력을 통해 발굴한 스마트도시 및 철도·도로, 공항 및 플랜트, 고속철 차량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업계에 설명한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도급사업에 편중된 해외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도시개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에 대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과 논의한다.
 - 도시개발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, 사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, 금융조달 및 투자 등 단계별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패키지형 진출도 추진한다.
 - 이에, 업계 및 유관기관의 지원요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한다.
- 이와 함께,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조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그린에너지(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) 건설시장의 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시개발 및 그린에너지 등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”임을 강조하면서
 - “이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업계,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신형	(044-201-3516)
	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김영지 이상직	(044-201-3517) (044-201-3522)
해외건설 협회	정책지원단	책임자	단 장	정창구	(02-3406-1021)
		담당자	부 장	임재한	(02-3406-1107)

